



5면

꽃전 활용 모두의 공간 선포식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음 11월 14일) 제292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방역 강화 조치 발표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16일간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16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18일부터 16일간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전북도, 정부 비상조치 따라 거리두기 강화  
의료대응 능력 확보 위한 재택치료 내실화 시행

정부는 12월 초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 7천명대 환자 발생 900명대 위중증환자 등 상황 악화로 의료대응체계 붕괴 위기에 대응하고자 오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에 전북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정부의 비상조치 외에도 시·군 주관 해남이·해맞이 등 관련 불요불

급한 축제·행사를 취소 요청해 이동과 만남을 줄여 확산세 증가세에 반전을 유도한다. 개인·단체·산악회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해남이·해맞이 행사를 계획할 수 있기에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밀집이 예상되는 해남이·해맞이 명소 등은 출입금지 조치 등을 시·군과 협조해 방문객 출입을 사전에 통제할 계획이다. 모든 민간단체도 역시 연말연시 행사를 자제하고, 휴식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 단체가 연말연시 행사취소로 미집

행 예산이 발생해더라도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불이익을 없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 방역당국은 도민들께서도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동과 만남 자체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모임과 만남 자체,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여 환자 증가세 반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위중한 시기”라며 “차집중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소아·청소년 기본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로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

사업주에 고용유지·고용촉진 등 지원금 지급  
근로자에 훈련연장 급여 요건 완화 등 지속화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내년 12월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전북도는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으로 경제 회생 중인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됐다고 16일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2018년 4월 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연장심사를 통과하며 3회 연장에 성공했다. 올해는 연장 한도를 채워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10월 29일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회 추가 연장의 기회가 열렸다.

하지만, 4년 간의 고용 특별지원 효과로 군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고용지표가 호전됐고, 일부 고용전문가는 더 이상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연장심사 통과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시 고용률 ▲공실률, ▲공시지가 상승률, ▲수급자 수 증감 등 연장 건의를 위한 정성평가를 개발하고, 현장간담, 부처 건의 등 연장 당위성을 지속 건의하며 전남, 경남 등과도 연대해 왔다. 아울러, 전북도와 군산시의 협력에 더해 지역사회 동참 노력도 주효했다. 전북도의회 건의안 채택에 이어, 군산시의회 건의안 전북상공회의소의회 건의서가 고용노동부에 제출됐다. 지역 언론 주도로 도민여론도 결집돼 연장을 염원하는 분위기도 부처에 전달됐다.

이번 연장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등 11개 사업이 계속 지원된다.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 급여 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부담 면제,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확대 등 7개 사업이 지원되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청년센터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제도 지속 운영된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고용부의 직접지원 규모는 12만2,920명 1,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1년의 추가 기회 내에서 정부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군산을 고용안정 계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관계로 신문은 21일 발행합니다.

## 도,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선정 ‘꽤 거’

경제기반형 - 전주 덕진 ‘신경제거점’  
일반근린형 - 무주읍 ‘100세 건강도시’  
남원 금동 집수리 등 내년 예비사업 선정

전북도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전주시 무주군 등 2곳을 선정해 국비 35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주시 덕진권역 메타버스 중심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 신경제거점전주(경제기반형), ▲무주군 무주읍 ‘생애.ing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무주’(일반근린형)이다. 전주시 덕진권역사업은 덕진동, 금암동 내 종합경기장과 노후 주거·상업지역에 메타버스 육성 및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청년 창업공간 메타스타디움 플랫폼, 체험과 크 창업지원주택, 친환경 스마트거리 등을 조성한다. 무주군 무주읍사업은 무주읍 읍내리 노후 주거지 내에 생활문화어울림센터 집수리 지원, 고령친화 커뮤니티센터, 가로환경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시 덕진권역사업은 국토부에서 전국 유일하게 경제기반

형사업으로 선정돼 6년간 국비 250억 원을 포함 417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그간 지방법원 이전 등으로 쇠퇴한 종합경기장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종합경기장 일대는 지난 1963년 전국체전 유치, 1968년 택지개발로 90년대까지 변화한 지역이었다. 이후 시 외곽 신시가지개발과 월드컵경기장 조성으로 인구 감소(1990년 대비 39%) 및 노후건축물 비율(67.4%)이 높은 쇠퇴도가 심각한 지역이 됐다. 이번 사업으로 메타버스 관련 창업공간, 체험 파크, 생태도시 숲 조성 및 가로 환경정비 등을 추진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이전부터 전주 한옥마을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의 모델을 제시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도입한 이후에도 국토부 공모에 적극 대응해

전국 최대 규모인 총 43개소 총사업비 6,444억 원(국비 3,793억 원 포함)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물리적 재생 외에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대학도 확충하고, 주민 교육 및 주민 참여 공모 시행 등 도시재생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전북도는 사업이 완료된 2개소 외에 올 연말까지 추가로 2개소 사업 완료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문화·관광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비사업외 기업·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적극 육성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에 힘을 계속한다. 한편, 전북도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토부의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도 7개 시·군, 10곳이 선정돼 국비 9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집수리 사업단 교육·운영(남원 금동), ▲아동 놀봄 센터 조성·운영(진안 진안읍), ▲지역 특화상품 브랜드 개발(임실 임실읍) 등이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의회의** **임실군의의회**

군민의 소중한 뜻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임실군의의회**

열린의정! 으뜸의회!

IMSIL-GUN COUNCIL

임실치즈테마파크